

# 함께 걷는

# 길



WITH ARAB MUSLIMS

**JUNE 2015**  
**VOL.1**

발행인: 김현성  
편집: 정기은 디자인: 서응교  
<http://www.chammission.org>  
E-mail: [chammission@gmail.com](mailto:chammission@gmail.com)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4길 35,  
202동 1403호

요르단 암만의 시타델

권두언/

## 복음선교! 하나님의 능력!

박동석 목사 (C&amp;H A.M 이사장, 감동교회 담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롬 1:16)**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한 인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선교와 바울을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선교에 매진했을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롬1:14-15)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에 빛진 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빛 진자가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 놀라운 복음의 능력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상선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멀고 먼 나라 영국 웨일즈에서 온 약관 26세의 청년선교사는 대동강 뚝섬에서 조선의 관군에 의해 처형당합니다. 이때 토마스 목사의 목을 친 사람이 당시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토마스 목사의 한국 선교는 초장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마디 전도도 못한 채,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박규수에게 건네며 참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을 받아간 관원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박규수는 그 후에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던 적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교인이 탄생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칠십여 교회를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최봉석 목사입니다. ‘최 권능 목사’ 로 불리던 그는 노방전도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예수천당’ 이라는 구호와 무모해 보이는 전도로 놀라운 일을 한 것 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미국을 방문 하신 적이 없고 러시아에 가신 일도 없으며 우리 한국에 오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미국에도 흘러가고 러시아에도 들어갔으며, 한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 전하는 자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

복음은 전하는 자를 통하여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무언가 되어 보려고 로마에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세계 한복판인 로마에 복음을 증거 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각지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고지를 정복하여 기독교를 세계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복음을 문서로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서를 통하여 한 번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이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각종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연예인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연예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체육인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체육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가 있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신우회를 조직하여 전도했습니다. 직장 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지역을 선교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순종해야 합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아랍 무슬림 선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시대의 사명인 아랍권 복음화를 위해 우리는 작은 복음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2억 아랍 무슬림 인구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씨앗 일 수도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무모해 보이는 이 일을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알고, 기도로 선교하고 후원으로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4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품어야 합니다.

복음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며 전해야 합니다. C&H A.M Mission 은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랍 무슬림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본 선교회의 시작과 사명 위에 기도와 격려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 이슬람에 관하여/ 기독교와 이슬람: 선교확장의 비교

박형진 목사 (C&H A.M 총무이사, 햇빛트리니티 신대원 선교학 교수)



기독교와 이슬람은 공히 양자 세계종교 가운데 가장 선교적인 종교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오늘날 지구촌의 가장 큰 영역을 두 종교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선교의 성격이나 확장의 과정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대조적인 면을 나타낸다. 이 글에서 필자는 두 종교의 이러한 차이점을 오늘날 선교학자 가운데 소위 ‘번역이론’ (ranslation theory)을 주창하는 앤드류 월스(Andrew Walls)와 라민 사네(Lamin Sanneh)의 주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나마 기술해 보고자한다.<sup>1)</sup> 한 마디로 이들에게 기독교신앙과 이슬람 신앙의 차이점은 번역가능성(translatability) 대 번역불가능성(non-translatability)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 두 종교의 기원에 있어서 중요한 두 사건, 즉 오순절(Pentecost)과 히즈라(Hijrah)라는 역사적 사건이 지니는 함의이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그 시초부터 다른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데 이는 계시된 언어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수반케 하였다. 기독교의 특징적 사건으로 이슬람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두 사건이 있으니 곧 성육신과 오순절 사건이다. 전자는 삼위의 제 2위이신 성자의 강림, 후자는 삼위의 제 3위이신 성령의 강림을 말해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실로 기독교 선교의 뛰어난 타개점, 즉 “번역가능성”을 말해주는 근간적 사건이다. 월스가 성육신에 비중을 둔다면, 사네는 오순절에 비중을 두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분수령은 바로 각 현지의 자국어가 하나님을 계시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그 충분성과 자율적인 권위가 있음을 보여준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이다. 이 기독교 신앙이 여러 각 지역이 그 중심점이 될 수 있다는 다중적 성격을 지닐 수 있음을 말해준다.<sup>2)</sup>

오순절이 기독교 확장의 본질을 말해준다면, 그에 상응하여 이슬람 확장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히즈라(Hijrah)라고 할 수 있겠다: 이슬람의 히즈라사건이 그 지리적 언어적 중심점이라는 유산을 남겼다면, 기독교의 오순절사건은 그 반대적 과정을 창출시켰다. 히즈라는 단순히 선지자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의 안전을 위한 피신정도의 사건이 아니었다. (비록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되긴 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이슬람의 기원을 탄생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각 지역의 자국어의 자율적 주장을 오히려 무효화시키는 사건이었다. 히즈라는 이점에서 오순절과는 반대이다.<sup>3)</sup>

둘째, 언어적 함의로써 자국어(Vernacular) 대 공용어(Lingua Franca)의 대결이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정경의 언어를 대함에 있어 극단적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본래 사용했던 언어[아람어]를 포기하고 오히려 당시 대중들이 사용했던 코이네(koine) 헬라어와 별가(vulgar) 라틴어와 같은 통속적 형태의 언어를 교회의 주된 공용어로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하겠다.”<sup>4)</sup> 아랍어는 꾸란의 계시된 언어로 그 신성한 권위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는 아랍어의 음운 그 자체도 하늘에서 기원되었다고 믿고 있다.”<sup>5)</sup> 이러한 아랍어의 위치 때문에, 다른 모든 자국어들은 이슬람에서는 경전을 번역하기엔 저속하고 불법적인 언어로 간주된다. 사네에 의하면 “이슬람을 선교적 종교로 성공할 수 있게 한 원인은 바로 아랍어를 영원히 신성시하는 이 특성에 기반을 둔다” 라고 보고 있다.<sup>6)</sup>



셋째, 영토적 함의로서 포스트-크리스텐덤(Post-Christendom) 대 다르-알-이슬람(Dar al-Islam)의 대조점이다. 자국어나 공용어나 강조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그 종교를 추구함에 있어서 영토에 대한 개념에서도 판이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기독교의 경우 예전에는 기독교왕국(Christendom)을 추구하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한 왕권 하에 하나의 언어(특히, 라틴어)가 사용되는 지역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자국어를 중요시하는 선교적 원칙은 사실상 이러한 기독교왕국의 해체를 가져왔다.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왕국 후기(post-Christendom)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은 아랍어를 공용어로하는 점에서 이슬람왕국을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영토적 개념은 이슬람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내재하고 있는 개념이다.<sup>7)</sup>

넷째, 확장양식의 차이로서 동심원적(Concentric) 이동 대 순차적(Serial) 이동의 대조점이다. 기독교의 확장은 역설적이게도 주변적(peripheral)이라는 것이다: “오순절과 안디옥교회의 선교파송 이후로, 기독교는 그 중심부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 다음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부터는 등을 돌리고 예전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고 여겨지던 주변부에서 더욱 번성해 나가기 시작했다.”<sup>8)</sup>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는 여러 지역을 그 중심점들로 여기며 확장되어가기 시작했다. 이름을 거론하면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니시비스, 아일랜드 등을 들 수 있겠다.

기독교가 확장되어가는 움직임을 보면 이는 순차적(serial)이었었다.<sup>9)</sup> 즉, 그 중심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점 자체가 이동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기독교의 무게중심점이 서구로부터 많은 비서구 국가가 위치하고 있는 남반구세계로 바뀌어 오게 된 것이다. “유럽에서의 기독교 쇠퇴는 라틴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남태평양, 그리고 아시아의 몇몇 지역의 기독교의 중대를 수반했다.”<sup>10)</sup> 반면에, 이슬람은 그 중심점이 언제나 메카(Mecca)에 고정되어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슬람의 확장은 그 움직임이 마치 물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확대되어 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메카를 향하여 기도한다. 메카는 또한 무슬림들의 일생 중 한번은 방문하려고 하는 성지순례지이기도 하다. 이슬람신앙의 언어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아랍어이다.

번역가능성(translatibility)이 지리적으로 함의하는 바는 바로 확장되어가는 중에 결국 본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기독교에는 메카와 같은 개념의 장소는 없다. 심지어 예루살렘과 그곳서 사용하던 언어조차도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아니다: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상당히 일찍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점으로서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sup>11)</sup> 서기 124년경 디오그네스투스(Diognetus)라는 이에게 써진 어느 한 무명인의 편지는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성격을 드러내 준다: “어느 외국도 우리에게 본국이요, 어느 본국도 우리에게 외국이다 - any foreign country is a motherland, and any motherland is a foreign country.”<sup>12)</sup>

1) 이들의 번역이론에 대해선 월스와 사네의 두 책을 참조바람. Andrew F. Walls,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Studies in the Transmission of Faith* (Maryknoll: Orbis, 1996); Lamin Sanneh, *Translating the Message: The Missionary Impact on Culture* (Maryknoll: Orbis, 1989). 좀 더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글들을 참조할 수 있다: Andrew F. Walls, “The Translation Principle in Christian History,” in Philip C. Stine(ed.), *Bible Translation and The Spread of the Church* (Leiden: E. J. Brill, 1990), 24-39; Lamin Sanneh, “Gospel and Culture: Ramifying Effects of Scriptural Translation,” in Philip C. Stine (ed.), *Bible Translation and The Spread of the Church* (Leiden: E. J. Brill, 1990), 1-23.

2) Sanneh, “Gospel and Culture,” 13.

3) Sanneh, *Translating the Message*, 219-220.

4) Sanneh, “Gospel and Culture,” 1.

5) Sanneh, *Translating the Message*, 212.

6) Sanneh, *Translating the Message*, 212.

7) Lamin Sanneh, “Can a House Divided Stand? Reflection on Christian-Muslim Encounter in the West,”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7 (1993): 164-168.

8) Sanneh, “Gospel and Culture,” 1.

9) Andrew Walls, “Christianity” in *A New Handbook of Living Religions*, ed. John R. Hinnells (London: Penguin Books, 1997), 59.

10) Walls, “The Translation Principle in Christian History,” 38.

11) Sanneh, *Translating the Message*, 232.

12) Sanneh, “Gospel and Culture,” 7.

## C&H A.M MISSION 의 시작과 비전

김현성 선교사 (C&H A.M 대표)



### 아랍의 문화와 종교가 스민 곳, 레반트권역

오늘날 전 세계 무슬림 인구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약 17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웹사이트의 한 통계자료를 보면([www.muslimpopulation.com](http://www.muslimpopulation.com)) 2014년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20억 8천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일반적 통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17억명이건 20억 8천만 명이건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분명 기독교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슬람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라비아반도 권역과 요르단을 중심으로 하는 레반트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레반트권역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와 아랍의 문화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가장 잘 융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규모의 종족이자, 가장 복음화 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바로 아랍 무슬림입니다.

### 건너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2002년부터 아랍 무슬림들을 가슴에 품고 사역을 해 왔습니다. 영국 웨일즈,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특히 레바논 헤즈볼라 지역(시아무슬림)에서 사역하면서 수차례의 전쟁과 내전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무슬림 형제가 주님께 돌아오는 감격도 누렸습니다. 이집트 빈민가(순니무슬림)에서의 사역은 육체적으론 고된 삶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생활과 그들의 애환을 공유함으로 주어진 환경과 삶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오랜 시간 사역해 온 미국 팀을 통해 아랍어와 아랍 문화, 일대일 무슬림 전도와 양육에 대해서 집중적인 훈련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 사역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훌륭한 리더들을 통해서 배운 사역의 경험과 팀 사역의 원리 및 리더십을 또 다른 헌신된 자들과 공유하며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램은 2013년 7월 1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C&H A.M MISSION'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C&H A.M MISSION' 은 'Come & Help Arab Muslims' 의 약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10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고 간청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아랍 무슬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저희를 향해 부르시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 확신 가운데 아랍 무슬림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영적 필요와 현실적 필요를 돕고, 중국에는 그들을 예수님게로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본 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 복음이 심겨졌던 땅, 레반트 권역

본 선교회의 주 사역 대상인 아랍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레반트권역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간략히 정리 해 보았습니다.

〈출처:여호수아 프로젝트([www.joshuaproject.net](http://www.joshuaproject.net)), 2015〉

| 국 가   | 인 구        | 주요종교        | 기독교   | 복음주의자 |
|-------|------------|-------------|-------|-------|
| 레바논   | 4,494,000  | 이슬람(57.20%) | 32.3% | 0.6%  |
| 시리아   | 23,490,000 | 이슬람(90.10%) | 5.9%  | 0.2%  |
| 요르단   | 7,152,000  | 이슬람(96.50%) | 2.1%  | 0.3%  |
| 이라크   | 34,489,000 | 이슬람(95.40%) | 1.4%  | 1.4%  |
| 이스라엘  | 7,847,000  | 이슬람(77.00%) | 1.5%  | 0.2%  |
| 이집트   | 83,845,000 | 이슬람(86.30%) | 13%   | 3.4%  |
| 팔레스타인 | 4,480,000  | 이슬람(87.40%) | 1.7%  | 0.1%  |

| 국 가   | 전체종족 | 미전도종족 | 주요종족                                 |
|-------|------|-------|--------------------------------------|
| 레바논   | 25   | 7     | 팔레스타인계 아랍, 드루즈, 레반트계 베두인, 이라크계 아랍    |
| 시리아   | 37   | 18    | 시리아계 아랍, 쿠르만지 쿠르드, 나즈디 베두인 아랍, 알라위   |
| 요르단   | 22   | 14    | 팔레스타인계 아랍, 요르단계 아랍, 베두인 아랍, 이라크계 아랍  |
| 이라크   | 36   | 26    | 이라크계 아랍, 쿠르만지 쿠르드, 소라니 쿠르드           |
| 이스라엘  | 50   | 41    | 이스라엘계 유대, 러시아계 유대, 폴란드계 유대, 루마니아계 유대 |
| 이집트   | 39   | 23    | 수단계 아랍, 동부 베두인, 돈고라위 누비안, 아랍화 누비안    |
| 팔레스타인 | 20   | 8     | 팔레스타인계 아랍, 이스라엘계 유대, 레반트계 베두인        |

레반트권역에 속하는 위의 7개 국가는 예수님 이후 이미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들입니다. 또한 여전히 현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이 출현한 후 이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화 되어 기독교의 영향력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대부분의 곳에서 1% 미만의 복음주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의 모습은 이슬람과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구분되어 신앙보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락해 버린 씁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C&H A.M MISSION의 방향성

이러한 레반트권역의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하여 본 선교회는 시작되었고, 다음과 같은 비전으로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전진할 것입니다.

첫째, 본 선교회는 아랍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이루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여, 아랍 무슬림들 가운데 정착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무슬림들을 훈련, 양육하여 현지 사역자로 세워 나갈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아랍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의 소통 및 정보, 사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 중동 레반트권역에 대한 리서치를 통하여 선교 전략을 구축 할 것 입니다. 우선 레반트권역의 지역, 종족, 언어, 문화 등에 관한 리서치를 통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선교 전략을 세우고, 각 종족에 맞게 적용할 것 입니다. 아울러 레반트권역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지역이기에 성서 지리 및 역사 연구와 관련된 사역들을 세워 나갈 것 입니다.

셋째,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도록, 중동 요르단을 시작으로 하여 아랍 무슬림 복음화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일깨울 것 입니다. 아울러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기독교의 현 상황과 확산된 이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고, 복음의 증인 된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도전하여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동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 곳곳에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한 중보 기도자 및 후원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기도와 물질로 동역 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감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자 합니다.

“**선교**를 위한 거룩한 부담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부담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 **아랍 무슬림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갈망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아랍 무슬림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업입니다. 하지만 아랍 무슬림 선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다만 쉽지 않기에 좀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와 격려, 후원이 필요합니다. 혹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하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지 결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랍 무슬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아랍 무슬림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입니다.

선교를 위한 거룩한 부담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부담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에 종교적 율법에 얽매어 살아가는 무슬림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토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된 ‘C&H A.M MISSION’ 이 아랍 무슬림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는 단체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C&H A.M Mission 소식 및 기도 나눔



### 1) C&H A.M MISSION 창립대회

본 선교회의 창립대회가 2015.4.16(목) 07:00 서울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있었습니다. 1부 창립예배와 2부 회의, 3부 조찬 및 교제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박동석 목사(감동교회)가 추대 되었으며, 이사회 임원 선출 및 정관 채택 등의 순서를 거쳐 공식적으로 본 선교회가 창립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동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단체가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2) 스텝 구성

C&H A.M MISSION의 실질적 업무를 감당할 스텝들이 조직되었습니다. 선교회 대표가 사역하고 있는 중동 J국에 선교회 본부를 두고, 한국에서의 본부 사역지원, 이사회 및 각종 선교회 업무와 사역을 감당할 파트별 담당자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스텝들이 각자의 사역과 직장일 가운데서 헌신함으로 섬기는 선교회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가득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정기 간행물 '함께 걷는 길' 발간

본 선교회의 정기 간행물인 '함께 걷는 길'이 처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소식지가 중동 아랍권의 정보 전달과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한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와 기도제목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 주십시오.

### 4) KAICAM 회원단체 가입

C&H A.M MISSION이 KAICAM(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의 정식 회원 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선교회와 스텝들이 KAICAM 소속 단체에게 주어지는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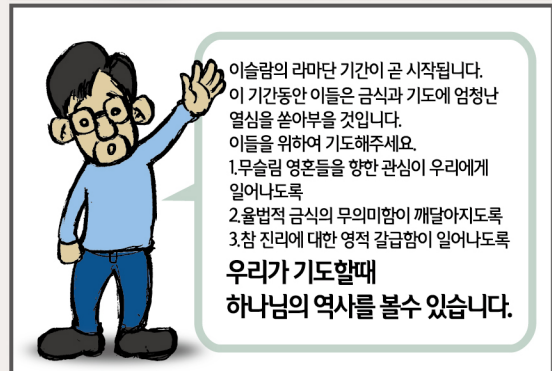
### 5) C&H A.M 회원 및 후원자 모집

본 선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로 물질로 또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선교회의 소식지와 중동 아랍 무슬림 사역에 관한 정보를 요청 시 제공해 드립니다. 더 많은 중보 기도와 재정 후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6) 이슬람권의 라마단 금식(2015.6.18~7.17)

오는 6월 18일부터 30일간 라마단 금식 기간이 시작됩니다. 라마단 기간을 통하여 아랍 무슬림들이 참 진리를 깨닫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김샘의 이슬람 TIP



## C&H A.M 이사회

이사장 : 박동석 목사(감동교회)  
고 문 : 강정식 목사(새성남교회), 박기철 목사(분당제일교회)  
총 무 : 박형진 목사(햇불트리니티신대원)  
서 기 : 손병규 목사(헤브리치치)  
감 사 : 최환열 집사(온누리교회)  
이 사 : 김만석 장로(감동교회), 김석한 목사(평강교회)  
김현덕 집사(영광교회), 남형열 목사(주님교회)  
류종상 목사(작전중앙교회), 박순규 목사(밀알교회)  
박종찬 집사(감동교회), 박진선 집사(감동교회)  
박진우 집사(주영광교회), 박희철 목사(함께하는가정운동본부)  
신일수 집사(감동교회), 신현 목사(강은교회)  
유요한 목사(서안교회), 윤동희 목사(소망의빛교회)  
이규한 목사(목양교회), 이은상 목사(은혜동산교회)  
이호석 집사(감동교회), 장홍모 장로(감동교회)  
정진오 목사(금밭교회), 최복용 목사(호산나교회)  
추종식 목사(법인재단하늘채), 하두형 목사(영국원불탄한인교회)  
한규동 목사(남문교회) 이상 가나다 순

## C&H A.M 스텝

대표 : 김현성  
행정/재정 : 전영주  
문서/편집 : 정기은  
회원 관리 : 정연심  
디자인 : 서응교  
리서치 : 최미화  
미디어 : 손미정

##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 5월)

이사 후원 : 김현덕, 박종찬, 박형진, 손병규  
신일수, 윤동희, 이호석, 장홍모  
개인 후원 : 김현성, 노윤태, 박희선, 이슬기  
임지아, 전병천, 정유진

아랍 무슬림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Come & Help Arab Muslims

후원방법1: 1.1.1 후원

월 1만원 재정후원 + 1일 1분 기도후원

후원방법2: 자동후원 (월 자동이체)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724701-01-412754 / 예금주: 김현성(C&H A.M MISSION)

처음 후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보다 쉽게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담당자: 정연심 (010-7633-1885)



C&H A.M  
Come & Help Arab Muslims

이메일 | chammission@gmail.com

홈페이지 | www.chammission.org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4길 35, 202동 1403호